

## 커리, 3점슛 1위 등극 시간 문제



▲ 스테픈 커리. 사진=warrionswire.usatoday.com

스테픈 커리의 통산 3점슛 1위 등극이 임박했다.

지난 24일 '투키'에 따르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는 2020-2021시즌 동안 자신이 여전히 리그 최고급 선수임을 증명해냈다.

3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성기급 시즌을 보냈다. 63경기에서 33.7점 5.8리바운드 6.1어시스트 1.3스틸 야투율 48.2% 3점슛 성공률 42.1%를 기록했다. 자유투 성공률도 91.6%에 육박했다.

생애 두 번째 득점왕을 차지했고, 경기당 3점슛 성공은 5.6개로 커리어-하이 기록했다. 야투 효율도 180클럽(야투율 50%-3점슛 성공률 40%-자유투 성공률 90%)에 근접한 수치를 냈다. 만장일치 MVP를 수상한 2015-2016시즌 이상의 시즌이었다.

커리는 2021-2022시즌에 통산 3점슛 성공 1위에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커리는 통산 2,832개의 3점슛을 성공하며 이 부분 2위에 올라 있다. 1위 레이 알렌(2,973개)에 단 141개 차로 다가섰다. 지난 시즌 커리의 3점슛 성공 개수는 337개였다. 부상으로 장기 결장한 시즌을 제외하면 못해도 200개 이상의 3점슛은 성공했다. 즉 차기 시즌에 커리는 알렌을 제치고 역대 최고의 3점 슈터로 기록적으로도 공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놀라운 것은 커리의 페이스이다. 커리는 통산 762경기에서 평균 3.9개의 3점슛을 성공했는데, 이는 1위 레이 알렌(1,300경기, 평균 2.3개)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페이스다. 커리가 큰 부상 없이 커리어를 계속 이어간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통산 3점슛 기록을 남길 수도 있다.

## 한국 축구 유럽파 6명, 월드컵 최종 예선 출전

한국 A대표팀 유럽파 선수들이 오랜만에 시즌 중 한국에서 열리는 A매치에 나선다.

지난 26일 '풋볼리스트'에 따르면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은 9월 2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이라크와, 7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1, 2차전을 치른다.

A대표팀 26인에 유럽파는 6명이 발탁됐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홋스퍼)과 부동의 주전 스트라이커 황희찬(지롱댕보르도), 독일 분데스리가 듀오 황희찬(RB라이프치히), 이재성(마인츠05)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황인범(루빈카잔)이 오랜만에 팀 벤투에 복귀했다. 울여름 터키 쉬페르리그로 이적해 신입 유럽파가 된 김민재(페네르바체)도 포함됐다.

유럽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시즌 도중 한국으로 이



▲ 손흥민. 사진=대한축구협회

동해 A매치를 치르는 것은 22개월 만이다. 2019년 10월 화성과 북한 평양에서 월드컵 2차 예선 스리랑카, 북한전을 소화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유럽과 선수들은 주말 소속팀 리그 경기를 치르고 장거리 비행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다. 8월 30일로 예정된 소집일에 맞춰 대표팀에 합류하고 사흘 뒤 이라크전에 나선다.

주말 경기 일정이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8월 28일 토요일인 선수들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29일 밤, 30일 새벽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은 일정이 빽빽하다. 손흥민은 29일, 황희찬과 김민재는 30일 소속팀 리그 경기에 출전한 후 한국으로 향한다. 이 때문에 합류 시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빽빽한 일정에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컨디션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저무는 '흑진주 자매'의 시대

비너스 윌리엄스(147위·미국)가 올해 US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5천 750만 달러)에 출전하지 않는다.

지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전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해 US오픈에 나가지 못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여름부터 다리 부상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동생 세리나 윌리엄스(22위·미국)가 올해 US오픈에 헬스트링 부상 때문에 불참한다고 밝힌 이후 약 10시간 만이었다.

이로써 30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올해 US오픈에는 비너스, 세리나 윌리엄스 자매가 모두 불참하게 됐다.

윌리엄스 자매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넘게 세계 여자테니스를 지배해왔다. 1981년생인 동생 세리나가 1999년 US오픈 단식 정상에 먼저 올랐고, 한 살 많



▲ 비너스 윌리엄스. 사진=shutterstock

은 언니 비너스는 2000년 윌블던을 제패했다.

이후 세리나는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3번 우승했고, 언니 비너스는 7번이나 '메이저 쿼'이 되면서 자매는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을 30차례 합작했다. 두 사람은 메이저 대회 여자 복식 결승에 14번 함께 올라 14차례 모두 우승했다.

세리나는 마거릿 코트(은퇴·호주)가 보유한 최다 우승 기록 24회에 바짝 다가섰으나 2017년 호주오픈

이후로는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다.

'흑진주 자매'로 불리며 세계 여자 테니스계를 주름잡았던 이들의 시대도 40세, 41세라는 나이와 맞물려 이제는 물어가는 분위기다.

비너스는 2017년 윌블던 준우승, 세리나는 2019년 US오픈 준우승을 마지막으로 메이저 대회 결승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 (323) 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